

강진군, 2021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0동 추진

방치된 주택으로 동당 50만원 철거비 지원

29일 까지 빈집 소재한 읍·면사무소 신청

강진군이 지난 12일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0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신

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철거비 지원금액은 동당 50만원으로 관광지 주변, 주요도로변 등 농어촌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

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 빈집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환경축산과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9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빈집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 마을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에 따르면 2020년 9월에 강진군내 빈집은 519동이며, 이 중 철거를 동의한 빈집은 82동이고, 나머지 437동은 철거하지 않고 추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김영일기자



순천시, 장애인전용 주차장 안내시스템 운영

공공시설 등 34곳 180면에 운영·장애인주차편의 증진

순천시는 보행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감소를 위해 장애인 주차장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 안내시스템은 2018년 말부터 설치하여 2019년 정착화 단계를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시설 등 34곳 180면에 운영 중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여 주차를 시도할 경우 즉시 빨간색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려 주차를 막

도록 설계된 무인 감지 시스템으로 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등록 차량여부를 장애인주차장 단속 담당공무원에게 전송한다는 것. 따라서 일반차량이 진입하여 경보음이 울려도 차를 이동하지 않는 등 불법주차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차량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식 UD볼을 130곳 567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고흥군, 아이와 청소년·여성이 모두 행복한 도시 조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청소년 교육과 문화복합공간·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고흥군은 아이와 청소년 및 여성이 편안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청소년 교육·문화복합 공간 조성, 여성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2022년 인증을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아동친화도시 T/F팀

구성 △아동보호 전담직원 배치를 통한 촘촘한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 내진보강 및 증축 △청소년 휴식 공간인 ‘YOUTH 휴’ 설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제정 및 여성 취창업 교육, 안심귀갓길 조성 등의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연구용역 △군민참여단 구성·운영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5개분야 18개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주 남구, 장애학생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 지원

광주 남구는 14일 “겨울방학 동안 중·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없는 관내 장애학생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이용자

는 특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왕성한 외부 활동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로 28만 1,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급여 이용 기간은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이며, 특별급

여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급여 지원금은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한도액 내에서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이용 후 지원금이 남더라도 개학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미희기자

나눔실천·안전기여·희망 전파·기타 4개분야 670여 명 발굴

여수시는 2020년 한해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 지역의 숨은 공로자 670여 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봉사과 사랑을 실천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진정한 공로자에 대한 자부심 고취로 지역 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시 산하 전 부서를 통해 추천서를 접수했다. 대상자는 2020년 한해 ▲‘나눔실천’ 각종 사회 봉사, 재산·재능 기부, 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기여’ 인명 구조 및 재산 구조, 생활 안전, 환경 보호 ▲‘희망 전파’ 공동체 나눔을 통한 역경 극복, 각

종 구호활동, 가족에 실천 ▲‘기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과 사랑 실천 등 4개 분야에 기여한 감동과 미담의 주인공이다. 선정된 670여 명의 주인공 중에는 ‘매일 우유팩을 모아 교환한 화장지 40세트를 후원한 어르신’, ‘도시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수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부한 단체’ 등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감동과 미담의 훈훈한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